

광주·전남 중견기업들 '성장 사다리' 탈까

중기청 법령·규제 정비, 공공 조달시장 참여 등 허용

행남자기·세화아이앤씨 등 150곳 대기업 진출 길 열려

광주·전남지역 150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중견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성장 지원책을 10일 내놓으면서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대기업만 존재하는 지역 경제에 '기업 성장 촉진'이라는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100여가지 '성장 걸림돌'을 절반으로 줄이고, 2019년까지 5000개의 중견기업을 키운다는 정책이 담긴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2015~2019년)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시절 지원했던 혜택을 전면 중단해 온 기존의 이분법적 법령과 제도를 뜯어고쳐 지원을 '단계적'으로 점차 줄여나갈(Sliding down) 예정이다. 시급하

게 개선해야 할 법령은 27개인데 올해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중기청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11개를 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등 관계부처 소관 법령 16개는 2016~2019년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견기업이 되면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되고 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인 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제한되는 등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혜택이 줄줄이 끊겼다. 또 일부 규제는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일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성장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견기업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이런 성장 걸림돌에 부딪혀 2012년 중견기업이었지만 이듬해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업체는 76개에 이른다.

정부가 중견기업을 키우기 위한 종합 대

? 중견기업 판단기준=규모와 상한, 독립성 여부 등 3가지 기준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상한 기준'의 경우 대기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매출 1500억원 이상이라는 4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한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지정된다.

책을 내놓은 것은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업체가 중소기업 시절 받았던 지원 대신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성장이 가로막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중견 기업 성장 지원책의 배경이 됐다. 2003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당시 876개(전체 기업의 0.03%)였던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846개(0.12%)로 증가했다. 같은 해 기준 광주엔 세화아이앤씨, 오택캐리어, 화전기공, 한국알프스

등 6개, 전남엔 행남자기, 한국알루미나, 디에스알제강 등 82개로 광주·전남지역엔 150개의 중견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견기업의 수는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총 매출액은 2013년 기준 629조4000억원으로, 전년(595조1000억원) 대비 5.8% 증가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매출 상위 1~3위의 합(585조원)을 웃돌았다.

현재 정부가 중견기업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파악한 법령과 규제는 총 101개다. 정부는 앞으로 매출액 2000억원 미만·중견기업 진입 후 3년 이내의 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중견기업 성장 친화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세화아이앤씨 관계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집중 성장 정책이 기대가 매우 크다"며 "성장이 정체된 지역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51.32 (-12.71)
- ▲ 금리 (국고채 3년) 1.77% (+0.04)
- ▼ 코스닥 718.23 (-4.28)
- ▼ 환율 (USD) 1108.20원 (-10.70)

기아차 '모닝' 유럽서 쾌속 질주

獨주간지 '최고의 경차' 선정

기아자동차 모닝이 유럽에서 또 다시 최고의 경차로 꼽혔다.

유럽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독일의 자동차 전문 주간지 아우토틀트(Auto Bild)는 최근호에서 한국의 경차에 해당하는 A세그먼트 차량 3종을 평가해 기아차의 모닝(현지명 피칸도)을 1위로 선정했다. 모닝은 2011년 아우토틀트의 유럽 대표 경차 6종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기아차 모닝, 푸조 108, 미쓰비시 스페이스스타 등 3개 차종을 대상으로 차체, 엔진, 주행성능, 연결성, 친환경성, 편의성, 경제성 등 7개 항목에서 진행됐다.



기아차 모닝은 700점 만점 가운데 452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푸조 108은 450점, 미쓰비시 스페이스스타는 432점을 받았다.

특히 모닝은 7개 항목 가운데 친환경 경성을 제외한 6개 항목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해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차로 평가받았다. 특히 실용성과 품질 및 조작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합뉴스

메르스 여파 ... 건강식품 잘 나간다

홍삼·비타민 등 면역력 강화식품

광주·전남 유통업 매출 급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습에도 강한 사람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품의 인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가짜 배수오 파문'으로 불신이 커지면서 주춤했던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은 메르스 공포의 와중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강식품군의 매출은 작년 동월에 비해 8% 감소했으나 메르스 불안감이 확산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건강식품군 매출이 급반등했다.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홍삼 상품군의 경우 기간 중 100%에 가까운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스피루리나'와 '프로비마게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성 식품도 60%이상 매출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비타민 C 등의 비타민 상품군도 54% 신장률을 보이는 등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 식품이 크게 매출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의 경우도 메르스 파장 이후 홍삼 상품군은 8%, 비타민 상품군은 10% 이상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채소와 과일류의 매출도 11% 이상 뛰었다.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정관장' 등 건강

기능 식품은 배수오 파동 당시 매출이 10%나 떨어졌다가 메르스 확산 이후 15% 이상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타민과 유산균 제품의 매출도 50% 넘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건강기능 식품뿐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품 역시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11번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홍삼과 성인 비타민, 어린이·청소년 비타민 매출이 지난 5월 마지막 주 매출에 비해 각각 87%, 106%, 9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옥션도 같은 기간 과즙·건강즙 매출이 14%, 향산화에 좋은 꿀과 프로폴리스류가 24%, 면역력 강화 식품인 마늘, 다시마 등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예방법으로 면역력 강화가 이슈화되자 건강원과 장어 등 보양식 식당을 찾는 소비자도 증가했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건강원은 양파와 도라지 등의 진액을 찾는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메르스 여파로 건강기능 식품이 인기를 얻자 식약처는 건강기능 식품을 약처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 식품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메르스의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면역력 높여주는 채소·과일 인기

메르스 여파로 유통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10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푸드마켓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채소와 과일 제철푸드 상품이 대거 선보였다.

메르스 여파로 유통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10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푸드마켓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채소와 과일 제철푸드 상품이 대거 선보였다.

금호타이어 美 '그린 굿 디자인상' 본상

금호타이어의 친환경 및 전기차 타이어가 국제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인 미국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 제품은 에코링 S와 에코링 ES 01, 와트런 VA31 등 3개 제품이다. 에코링 S는 2012년 국내 업계 최초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회전저항)을 인증받은 제품이다. 또 에코링 ES01은 유럽연합에서 최고등급인 A/A등급(회전저항·젓은 노면 제동력)을 받았으며 2013년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

드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 와트런 VA31은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지난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북미 굿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제품이다.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아메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매년 우수한 친환경 디자인을 선정한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5월 광주·전남 고용률 1.3%P, 0.7%P 하락

취업자 수도 감소

지난달 5월 광주·전남 지역의 고용률은 하락하고 취업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5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고용률은 58.4%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취업자는 7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전년 동월 대비 도소매·음식숙박업(6000명), 광공업(5000명)은 증가했고, 건설업(9000명), 농림어업

(5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000명)은 감소했다.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전남 지역 고용률 62.3%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으며, 취업자는 93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6%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당신의 광장/결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